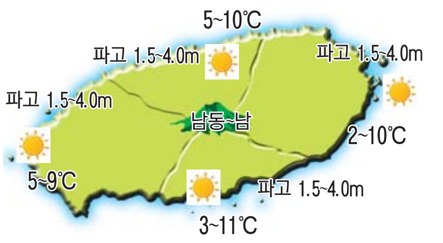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6일 월요일 음 2월 22일 (14물)

기상정보




### 맑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 낮 최고 기온은 9~11℃의 분포를 보이겠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4.0m로 일겠다.

| 오 전 | 강수 확률 | 오 후 |
|---|---|---|
| 0% | 제 주 | 0% |
| 0% | 성 산 | 0% |
| 0% | 고 산 | 0% |
| 0% | 서귀포 | 0% |

| | | | |
|---|---|---|---|
| | 해뜸 06:43 해짐 18:43 | | 달뜸 01:01 달짐 11:21 |
| 물때 | 만조 04:14 15:14 | | 간조 10:29 22:27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 | | | |
|---|---|---|---|
| 내일 | | 구름 많음 | 7/18℃ |
| 모레 | | 맑음 | 10/19℃ |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감기가능지수 |
|---|---|
| 관심 | 높음 |

## 월드뉴스

# 확진자 접촉 트럼프, 코로나19 음성 판정

### 일주일간 아무 증상 없어

트럼프(왼쪽)와 자이르 코우소나루(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검사까지 받은 끝에 결국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콘리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어젯밤 코로나19에 관해 면밀한 논의 후에 대통령은 (검사를) 진행하기를 선택했다"며 "오늘 밤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우려는 지난달 참석했던 보수단체 행사에 온 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브라질 대통령과 만찬, 8일 모금행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만 73세의 트럼프 대통령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그동안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주치의 콘리가 언급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만찬은 지난 7일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만찬 테이블에 앉은 한 인사가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 전 발열 검사도 받았다고 했다.

백악관은 만일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과 밀접하게 접촉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백록담

# '포스트 코로나19'를 미리 준비할 때다

문 미 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일요일 아침, 차량도 인적도 드문 서귀포시 원도심의 대도로변에서 어림잡아 40~50명은 됨직한 이들이 길게 줄지어선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 주중에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한 이들이다. 순간 주중에 간신히 공적마스크 2장을 구입한 기억이 떠오른다.

'코로나19' 블랙홀이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이 미뤄졌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적적함을 달래고, 주말이나 퇴근후 친구·지인과 차 한잔·밥 한끼를 나누던 별다를 것 없던 익숙한 '일상'도 지금은 잠시 멈춤 상태다.

제주에선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던 음식점업과 관광숙박업계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렌터카·전세버스는 가동률이 바닥을 치며 보험료라도 줄이려 번호판을 떼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식당과 편의점에선 손님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해 경영난을 호소한다. 국제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되며 일본으로 화훼를 수출하던 농가들은 주요 소비처를 잃었고, 개학이 미뤄지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충격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헌신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서부터 유증상자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들의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 이를 검사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와 재난관리부서 공무원들은 한 달 가까이 비상근무중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제주공항 국제선·국내선 도착장과 항만 등에 자체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운영중이다. 또 4명의 제주 확진자가 모두 대구와 연관되면서 대구~제주노선 이용 탑승객에게 대구공항에서 출발 전에 발열체크를, 그리고 제주에 도착 후엔 공항내 별도통로를 이용해 재차 모두 발열체크를 받도록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감염병 위기상황을 겪으며 너나없이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자는 연대의식도 단단해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 기탁에서부터 부녀회 등 여러 단체에서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는가 하면 마을방역을 책임지는 자생단체까지 감염병이란 재난 앞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빛나는 요즘이다.

그리고 2020년의 봄날을 집어삼킨 감염병은 앞으로 언제든 엄습할지 모를 유사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절감시켜 줬다.

하지만 앞으로 감염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언제쯤 종식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불안한 일상 속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캐리어를 끈 관광객이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제주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것이다. 그때 그들을 맞는 자세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관광객 급감 후의 충격을 제대로 경험했으니 말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위축된 제주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열린마당

# 생활 속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위한 실천

김 태 훈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2년부터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CFI(CarbonFreeIslan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실천이 더욱 중요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생활 속 부문별 온실가스 감소 실천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1회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급제동·출발을 하지 않으며, 신호대기 시 기어 중립으로 놓기 등의 실천을 통해 연간 1241kgCO²의 탄소저감(188그루 나무식재 효과) 효과와 87만3000원 가량 비용이 절약된다.

둘째,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1시간 줄이고 냉방온도는 2℃ 높이며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한다. 또 겨울철 보일러 사용을 1시간 줄이고 난방온도를 2℃ 낮추면 연간 359kgCO2의 탄소저감(54그루 나무식재 효과) 효과와 13만원 비용절약이 가능하다.

셋째, 컴퓨터절전프로그램 사용 및 사용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와 더불어 전기밥솥 보온시간 3시간 줄이기, 세탁횟수 주1회 줄이기 등을 통해 연간 239kgCO²의 탄소저감(36그루 나무식재 효과) 효과와 7만1000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종이청구서는 스마트폰으로 받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실천으로 연간 239kgCO²의 탄소 저감(36그루의 나무식재 효과)과 7만1000원의 비용절약 효과가 있다.

이를 모두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2t의 탄소저감(314그루 나무식재 효과)과 114만5000원의 비용절감이 발생돼 1석 3조의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탄소프리아일랜드 실현을 더욱 앞당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 필요

홍 창 보
제주동부소방서 남원남성의용소방대장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이즈음이 되면 겨울철의 대륙성 고기압이 약화되고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돼 한난이 반복된다. 이후 기온은 날마다 상승해 마침내 봄이 된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감귤나무를 가지치기 하면서 생긴 폐기물,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 불법 소각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소각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한해 동부소방서 관내 화재사건 159건 중 남원읍에서만 52건이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농가 작업 후 잡목,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날려 옮겨 붙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개는 다행히 가벼운 들불이나 잡목 화재로 그치지만, 인근 비닐하우스나 건물로 번져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은 외진 곳에 위치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됨은 물론 진입로가 협소한 농로로 대형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주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하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 스스로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해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농민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 | | | |
|---|---|---|---|
| 최고급복지 | 맞춤정장 | 100만 | 40만 |
| 고급 | 〃 | 60만 | 35만 |
| 보통 | 〃 | 35만 | 25만 |
| 최고급복지 | 맞춤콤비 | 60만 | 30만 |
| 고급 | 〃 | 40만 | 25만 |
| 최고급복지 | 맞춤바지 | 25만 | 12만 |
| 고급 | 〃 | 15만 | 8만 |
| 보통 | 〃 | 10만 | 6만 |
| 와이셔츠 | 맞춤셔츠 | 8만 | 5만 |

영업시간: AM 9시~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 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